

범패의 분류 연구(1) (梵唄의 分類 研究)

- 제(齊) 의식(儀式)을 중심(中心)으로 -

金 應 起

(重要無形文化財 第50號 靈山齋 履修者)

- | | |
|--------------|------------|
| I. 序言 | 2. 훗소리 |
| II. 佛教儀式의 種類 | 3. 짓소리 |
| 1. 儀式의 分類 | 4. 和請 |
| 2. 儀式의 構成 | 5. 梵唄와 作法舞 |
| III. 梵唄의 分類 | IV. 맺는말 |
| 1. 안채비 | |

I. 서 언(序言)

불교의식 음악인 범패는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3대 성악의 하나이다. 삼국의 불교 전래와 더불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장 스님들이 구음에 의해 전통의 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범패(梵唄)는 불덕(佛德)을 찬탄(讚嘆)하는 말로 인도에서는 가패(歌唄)하고 하며 파척(婆陟), 파사(婆師), 패익(唄匿), 성패(聲唄), 찬패(讚唄), 경패(經唄), 성명(聲明)이라고 칭한다.

범패는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성시율이며, 각종 의식에 쓰여 종교의식을 장엄하게 해주며 신앙심을 고취시킨다. 이러한 범패는 의식의 형태에 따라 안채비, 바깥채비(훗소리, 짓소리), 화청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분류하기도 하고 바깥채비의 훗소리, 짓소리를 나누어 4가지 형태로 분류하기도 한다. 좁은 의미의 범패는 훗소리만을 가리키고 범음은 짓소리의 별칭이다.

이 글은 1994년 12월 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연구실(文化財研究所 藝能民俗研究室)에서 전통음악 음향자료의 영구 보존을 위한 CD복제 작업중 범패의 주제별 분류 작업에 참여하여 아직까지 범패의 각 소리에 대한 분류가 미비한 시점에서 범패의 분류를 각 의식에 따라 나누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옮긴 것이다. 여기에서는 현재 널리 알려진 안진호(安震湖) 『석문의범(釋門義範)』과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지정과 더

불어 한국 법패를 이끌어 가는 어산(魚山)의 범음집(梵音集)인 『봉원사요집(奉元寺要集)』, 그 외 『작법귀감(作法龜鑑)』과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불교의식(佛敎儀式)』을 중심으로 재의식(齋儀式)(작법(作法)) 진행에 따른 곡의 순서대로 분류하였다. 또 재(齋)의 구성(構成)에 따른 각 소리의 분류는 다음편 법패(梵唄)의 분류(分類)(2)글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II. 불교의식(佛敎儀式)의 종류(種類)

1. 의식(儀式)의 분류(分類)

의식이란 크게는 의례 하나 하나가 모여 이루어진 전체의 포괄적 의미로, 불교 교리 및 모든 수행 전체를 뜻하며 작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불제자가 불보살상(佛菩薩象) 앞에 드리는 모든 의례를 뜻하기도 한다. 전자를 광의적(廣義的) 의식(儀式), 후자를 협의적(協議的) 의식(儀式)이라 한다. 또한 의식은 상주권공재, 각재배, 영산재, 생전예수재, 수록재 등 어산(魚山)스님의 전문적(專門的) 기능(機能)을 갖춘 법패와 작법의 전문의식(專門儀式), 일상생활에 행하여지는 안채비 중심의 염불, 일용의식(日用儀式)으로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의식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자력적(自力的)성향과 타력적(他力的)성향의 두 형태로 나타나며 참회와 발원을 통한 중생구제(衆生救災)와 성불(成佛)을 그 목표(目標)로 한다. 의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 1) 예경의식 : 조석(朝夕)으로 불, 법, 승 삼보는 물론 상단, 중단, 하단 등 일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예(禮)를 드려 공경하는 의식을 말한다. 도량석(목탄석), 쇠송(중성(鍾聲)), 조석예불, 송주, 각단예불(대응전, 극락전, 팔상전, 용화전, 대장전, 관음전, 나한전, 명부전, 신중단, 산왕단, 조왕단, 칠성단, 독성단, 현왕단)이 있다.
- 2) 수계의식 : 계(戒)(sila)는 삼학(三學)(계학·정학·혜학)의 하나로 선(善)을 증장시켜 악(惡)을 그치도록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이다. 대승계(大乘戒)와 소승계(小乘戒)로 나누며, 대승계는 삼귀계(三歸戒), 삼취정계(三聚淨戒), 십중금계(十重禁戒),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등이 있으며 소승계(小乘戒)는 오계(五戒), 팔계(八戒), 십계(十戒)와 출가인에게 계를 설하는 사미계의식(사미계, 사미니계), 구족계의식(비구이백오십계, 비구니 삼백사십팔계), 건당의식이 있으며 일반 재가인에게 계를 설하는 우바새(남신도) 우바니(여신도)계 의식이 있다.
- 3) 영혼천도의식 : 재(齋)는 범어(Uposadha)로 스님들의 공양의식을 뜻하나 불교 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점차 범회 의식으로 발전하면서 인왕백고좌도량(仁王百高座道場), 금강명경도량(金剛明經道場) 등 호국법회(護國法會)의 형식으로 번져 나갔다. 이것이 훗날 생자(生子) 혹은 사자(死者)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일체의 행사를 재(齋)라고 통칭되어 대체로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대례왕공재), 영산재, 수록재, 살아생전에 재를 올리는 생전예수재로 나뉜다.
- 4) 점안의식 : 점안(點眼)을 개안(開眼)이라고도 한다. 이는 새로 그리거나 조각한 불화,

불상 등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어 신앙의 예배 대상으로 성화시키는 의식이다. 불상점안, 탑을 조성후 모시는 조탑점안, 나한점안, 십왕점안, 천왕점안, 가사점안, 조전점안 등이 있다. 사찰에서는 불구(佛具)를 새로 만들거나 개수하였을때 근본서원을 나타나기 위하여 점안법회의식을 진행한다.

- 5) 이운의식 : 이운이란 자리를 옮겨 모신다는 뜻으로 야외에 단을 꾸미고 쾌불을 모시는 쾌불이운, 가사를 새로 지어서 책복에 앞서 모시는 가사이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 옮기는 불사리이운, 재(齋)의식에 쓰일 금전과 은전의 돈다라니를 옮기는 금은전이운, 그 외 경합이운, 설주이운, 시주이운이 있다.
- 6) 공양의식 : 삼단권공(三壇勸供), 중단권공(中壇勸供), 하단권공(下壇勸供)이라 하여 신앙의 대상이 모셔진 각전(各殿)에 향(香), 등(燈), 다(茶), 과(果), 화(花), 미(米) 등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각단불공(各壇佛供), 제불통청(諸佛通淸), 삼보통청(三寶通淸) 혹은 불공의 대상에 따라 미타청, 약사청, 관음청, 지장청 외 각단에 각청(各請)으로 권공하는 의식을 말한다. 또 진언권공은 삼보전 등 각단에 불공을 올림에 있어서 다라니와 진언으로 공양을 권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 삼보전에 귀의하고 염원자의 발원을 이야기하는 축원이 있다.
- 7) 수행의식 : 일상 수행절차의 일환으로 설법 듣기에 앞서 법을 일러주실 것을 청하는 청법의식, 출가 수행승이 일정 기간 동안 만행을 멈추고 수행처에 머무러 안거(安居)하는 동안거, 하안거의 결제 및 해제 의식, 강원(講院)에서 불경(佛經)을 강의하기전 불은(佛恩)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예를 올리는 강원상장례가 있고, 그 외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의식으로 본다.
- 8) 장례 천도의식 : 죽은 이를 위하여 왕생극락과 깨달음의 법의 일러주기 위하여 거행하는 의식으로 시다림, 영결식, 다비의식, 천도의식, 시식, 49재, 100일재, 소장재, 대상재, 공일천도재, 제사와영반 등이 있다.
- 9) 연중행사 : 새해를 맞이하여 불은(佛恩)을 생각하고 대중이 열심히 수행할 것을 다시금 되새기며 삼보께 예를 올리는 것을 통알, 불탄질의 관불의식(연등회, 탑돌이), 그 외 출가절, 성도절, 열반절 등 봉축 행사와 영가천도를 위한 우란분회(백중(白衆), 백중(白鍾))가 있다.
- 10) 법회의식 : 사찰건립을 위한 불사나 불법을 설하는 모임으로 불사(佛事), 법사(法事), 팔관회, 연등회, 방생회, 각종 재, 점찰법회, 결사 등을 법회의식이라 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고 살아있는 생명을 놓아주는 방생의식도 있다.
- 11) 생활의례 : 법당(法堂)에 대중이 모여 공양에 앞서 공양을 받게 된 공덕과 공양을 받고 수행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아귀를 구제하는 의식으로 각종진언과 작법무 등이 함께 아우러져 작법을 통해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식당작법(食堂作法)¹⁾과, 일반적으로 행하는 발우공양, 그 외 결혼식인 화혼의식 등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의례를 말한다.
- 12) 기 타 : 부처님 진신사리, 고승의 사리를 친견하고 예배하는 법회인 사리회와 법

1) 食堂作法 전통적 모습은 해마다 거행되는 奉元寺 靈山齋 시연에서나 볼 수 있고 일반사찰의 공양의식은 간단히 소심경만 염하고 공양을 모신다.

화경, 화엄경 등 경전 등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 쓰는 사경(寫經), 석경(石經), 송경(誦經), 강경회(講經會)가 있다. 그 외 불상을 조성하고 불신력을 상징하는 불사리, 다라니, 경전등을 넣는 복장의식(腹藏義式)이 있다.

2. 의식(儀式)의 구성(構成)

의식은 안채비와 바깥채비로 구성되어 있다. 예경의식, 수계의식, 공양의식, 수행의식, 범회의식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행하는 의식은 전문 의식승이 진행하지 않고 일반 사찰에 소속된 스님들에 의해 평염불과 몇몇 안채비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교의식은 먼저 상주권공제(常住勸供劑), 십왕각배제(十王各拜劑), 영산제(靈山劑)의 훗소리, 짓소리, 안채비 소리로 사명일대영(四明日對靈), 중례(中禮), 생전예수제(生前豫修劑), 다비문(茶毘文), 점안의식(點眼義式), 각종식(各種施食)과 영반(靈飯), 각종소(各鍾疏), 순당(巡堂), 각종식순절차, 소대전송절차, 시다림, 관음례문(觀音禮文), 신중대례(神衆大禮), 수륙제(水陸劑)가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필요하는 의식일지라도 재의 규모에 따라 근래에는 일반적(一般的) 평념불(平念佛)로 재(齋)를 구성해 나아가고 있다.

III. 범패(梵唄)의 분류(分類)

범패의 각 채비는 그 권공의식을 일반적 승려가 하는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범패와 범음을 익힌 스님이 진행하는가에 의해 나눌 수 있다. 작법진행을 전문적으로 익힌 어장의 경우 재(齋) 진행 절차에 따라 그 소리는 안채비, 바깥채비(훗소리, 짓소리), 화청으로 나뉜다.

1. 안채비

안채비는 대체로 경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본사(本寺)의 승법(乘法)이나 범주(法主)가 진행하는데 권공(勸供)하는 사유를 탄백하는 내용이 사(四)·육체(六體)형식과 산문형식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또, 절 안에서 행하는 일반적 염불을 안채비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 종류는 각기 여러 성(聲)으로 나뉘는데³⁾ 실제 소리를 하는 어장들은 유치성(由致聲), 계탁성(偈鐸聲), 착어성(着語聲), 편계성(偏偈聲) 사성(四聲)만을 안채비라고 한다.⁴⁾ 그 외 청사성(請詞聲), 소성(疏聲), 창혼성(唱魂聲) 등을 안채비로 분류⁵⁾하기도 하지만 근래 들어 큰 재(齋)일 경우 안채비는 역시 전문적으로 소리를 배운

2) 韓萬榮, 韓國佛敎音樂研究 (서울 : 서울대출판부, 1980), p.3

3) 李惠求, 韓國音樂序說, (國民音樂研究所1987), p.347. 韓國梵唄의 沿革에서 “안채비란 下壇奠施食을 가리키며, 그것은 舉佛, 證明茶偈, 下壇施食請文, 天手, 普召請眞言, 己承遍, 四陀羅尼, 七如來遍, 神呪加持遍, 法食己遍, 四泓誓願遍, 功德偈를 포함한다” 하여 일반권공을 안채비로 보았다.

4) 朴松岩스님 증언(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기능보유자), 1995년 10월 19일 서울 신촌봉원사. 당대 최고 어장이었던 봉원사 李月河, 南碧海스님에게 소리 일체를 사사 받아 현재 남아있는 짓소리와 안채비, 바깥채비의 일체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 “안채비는 四聲만을 가리키며” 그 외의 소리는 학자들에 의해 곡의 형태에 따라 성을 나누었다.

5) 韓萬榮 前揭書, 『佛敎音樂概說』 p.4. 안채비의 분류를 착어성, 창혼성, 유치성, 청문성, 편계성, 소성, 축원성, 가영성, 고아계성, 헌좌계성, 종성, 탄백성 등 12가지로 나누었고 黃晟起, 佛敎의 認識, 論理, 儀禮, (서울 : 保林社), 1989), p.250. 韓國 佛敎梵唄의 研究에서는 유치성, 착어성, 편계성, 소성 등 안소리(內唄)라 하여 4가지로 나누

어장스님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안채비는 상주권공, 각배, 영산, 훗소리를 읽힌 후 배우게 되는데, 중례(中禮), 관음예문(觀音禮文), 다비문(茶毘文), 시다림, 사명일대령(四明日對靈) 및 영반, 각종시식인 구병시식, 전시식, 화엄시식, 집안의식과 각종 소(疏), 순당절차, 신중대례(神衆大禮), 식순절차, 소대전송 및 회향, 예수제(豫修劑) 등의 소리를 배우게 된다.

1) 유치성(由致聲) : 유치(由致)라 함은 불공을 받드는 사유를 탄핵하는 내용이다. 삼보(三寶)(불법승(佛.法.僧))의 위력이 높음을 찬탄하고 금일재자(今日齋者)가 발원하는 사정을 고백하며, 삼보께서 이에 감응하시기를 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상단유치는 유치성으로 하고, 중단유치는 편문성(編文聲)으로 한다. 6)

(1) 상단유치(上壇由致)는 앙유(仰惟) 삼보대성자운운(三寶大聖者云云)

(2) 중단유치(中壇由致)는 절이(切以) 환희원중(歡喜園中) 운운(云云)으로 진행한다.

청사성(請詞聲)(청문성(請文聲)) 유치가 끝나면 곧 이어지는 소리로 소례의 불보살께서 강림해 주실 것을 청(請)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주는 요령을 흔들며 삼청(三請)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데 이것은 오례삼전(五禮三展)⁷⁾에서 나온 것이다.

제불통청, 미타청, 약사청, 관음청, 미륵청, 지장청, 나한청, 칠성청, 신중청, 산신청, 용왕청, 독성청, 현왕청, 제석청, 사천왕청, 풍백우사청, 가람청, 용왕청, 정신청, 태세청이 있다.

2) 개탁성(偈鐸聲) : 훗소리 학습과정에서 배우며 상부개계(詳夫開啓), 원부개계(原夫開啓), 영산개계(靈山開啓)는 일자(日字)씩 끊어서 하기도 하며 총총히 읽어 내려가다 소리를 짓는다.

3) 착어성(着語聲) : 착(着)이란 선문(禪門)서 쓰는 말로 마음이 바깥경계의 사물에 끌리어 여의치 못한 것을 말한다. 즉 문(文)과 송(頌)으로 마음에 경계인 착심(着心)을 여의도록 깨우치는 법으로써 공안(公案) 곧 화두(話頭)의 본칙(本則)이나 그 송(頌)에 대해 짚막히 평을 더하는 말로 하어(下語), 평창(評唱)이라 하고 또는 사례를 들어 본분나인(本分那人)의 경지를 넘롱(拈弄)하는 것이라 하기도 한다. 법주가 요령을 흔들 후 평성(平聲)으로써 글을 지어 내려간다. 편계성은 주로 하단시식시(下壇施食時)에 불리어진다.

(1) 시식시착어성(전시식, 관음시식⁸⁾, 화엄시식⁹⁾, 구병시식)

(2) 다비시착어성(반흔착어)

(3) 영반시착어성(종사영반, 상용영반)

(4) 대령시착어성(대령, 사명일대령)

4) 편계성(偏偈聲) : 소리의 높낮이를 사성(四聲)에 의거 일자(一字)일자(一字) 잡아 나아가지만 개탁성(開鐸聲)과 달리 평성(平聲)이 주류를 이룬다.

(1) 하단(관육시) : 인예향육편, 가지조육편, 가지화의편, 가지예성편, 수위안좌편

었다.

6) 金月雲, 日用儀式隨聞記, 중앙승가대출판국, 1991.p.44.

7) 齋者が 부처님께 말씀드릴 때의 예법으로 첫째, 자리에서 일어나고, 둘째, 오른 어깨를 벗고, 셋째, 합장하고 절하며 넷째, 무릎을 꿇어 앉아서 다섯째, 정중히 사죄되 이렇게 세번 거듭한다.

8)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주와神通력을 빌려서 지옥중생의業火를 맑게 하여 大悲無障礙에 들어와 삼독을 버리고 삼보께 귀의시키는 시식을 말한다.

9) 華嚴施食은 『大方廣佛華嚴經』의 화엄법문을設하여 영가를 천도하는 것이다.

(2) 하단(다비 작법시) : 삭발편, 목욕편, 세수편, 세족편, 착군편, 착의편, 착관편, 정좌편, 입감편, 기감편, 거화편, 하화편, 봉송편, 착의편, 기골면, 십골면, 쇠골편, 산골편, 하관편

(3) 상단(불상점안시) : 앙고편, 관욕편

(4) 상단(예수재시) : 1. 통서인유편 2. 엄정팔방편 3. 주향통서편 4. 주향공양
5. 소청사자편 6. 안위공양편 7. 봉송사자편 8. 소청성위편
9. 봉영부욕편 10. 찬탄관욕편 11. 인성귀의편 12. 헌좌안위
편
13. 보례삼보편 14. 청부향욕편 15. 가지조욕편 16. 제성홀욕
편
17. 출욕참성편 18. 참례성증편 19. 헌좌안위편 20. 기성가지
편
21. 보신배헌편 22. 공성회향편 23. 소청고사판관편
24. 보례삼보편 25. 수위안좌편 26. 제위진백편
27. 상단가지변공편 28. 중단가지변공편 29. 하단가지변공편
30. 공성회향편 31. 경신봉성편 32. 화재수용편 33. 봉송명부
편
34. 보신회향편

(5) 수록재시 : 1. 설회인유편 2. 발보리심편 3. 소청사자편 4. 안위공양편
5. 개벽오방편 6. 안위공양편 7. 소청상위편 8. 헌좌안위편
9. 보례삼보편 10. 소청중위편 11. 천성례성편 12. 헌좌안위편
13. 소청하위편 14. 가지변공편 15. 선양성호편 16. 실시인연편
17. 선밀가지편 18. 주식헌공편 19. 고훈수향편 20. 참제업장편
21. 발사홍서편 22. 사사귀정편 23. 석상호지편 24. 수행육도편
25. 관행계찬편 26. 회향계찬편 27. 봉송육도편

5) 안채비 사성(四聲) 이외의 곡에 명칭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1) 진언성(眞言聲) : 주(呪), 신주(神呪), 밀주(密呪), 밀언(密言)이다. 범어 만다라(mantra)의 음역으로 진실하여 거짓없는 말을 가리킨다. 진언은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음역하여 그대로 읽는다. 진언을 외우고 그 문자를 관(觀)하면 그 진언에 응(應)하여 각각 공덕이 있고, 즉신 성불의 깨달음을 여는 것과 동시에 세속적인 소원(所願)을 성취한다고 한다. 여러 의식 가운데 진언은 많지만 일반적 진언은 염불승이하는 진언을 말한다. 같은 곡목의 진언이라도 전문적 범패승에 의해 홑소리나 짓소리등으로 불리는 진언도 몇 곡된다.

진언내용은 진언 서두에 나타나 있고, 진언은 범주가 요령을 흔들면서 한다.

가. 일반의식 진행시 진언

나. 범패승에 의해 홑소리나 짓소리로 불리는 진언

각배재시 : 보소청진언(나모 보보제리 다리다리 다타 아테야)

정토결계진언(음 소로소로 흠)

쇄향수진언(돌진언-나무 사만다 못다남 음 호로호로 전나라 마등기 사

바하)

예수재시 : 엄정팔방편후(나무사만다 못다남 음호로호로 지따지따 반다반다 하나 하나 아니제 흠바탁)

다음 진언은 깃소리로도 불린다.

목욕진언(음 바다모 사니사 아목카 아례흠)

사방축(음아마라하)

오짜게(음 살바못다 달마승가람 남모 소도제)

관욕계(음 제사제사 승가 사바하)

개법장진언(음 아라남 아라다)

인연자성후(음 아흠)

(2) 소성(疏聲) : 법주가 의식순서에 따라 글로써 소청 글을 말한다. 삼대가친 여러 어른께 절하고 석가여래 유교재자가 재를 봉행하는 것을 법을 잡은 사문이 아되는 글이다. 소청하는 그 대상은 소(疏)앞에 적혀있으며 소를 맡은 법주스님은 먼저 피봉식을 한 후 피봉지는 오른쪽 어깨 위에 올린 후 소성으로 글을 촘촘히 읽어 내려간다. 그후 맨 마지막 소의 글귀를 마치면서 병법사문의 이름을 밝힌다. 대령소, 건회소, 개계소, 대회소, 삼보소, 상단소, 십왕소, 사자소, 행첩소, 청장소, 물장소, 성위소, 명위소, 함합소, 개통오로소, 소청중위소, 소청하위소, 원만회향소, 풍백우사소가 있다.

(3) 기타 : 창혼(唱魂), 축원성(祝願聲), 가영성(歌詠聲), 고아계성(故我偈聲), 종성(鍾聲), 탄백성(歎白聲) 등 범패를 전문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일반 스님들에 의해 평염불로 불리는 일반계성(一般偈聲)을 들 수 있다.

2. 홑소리

상주권공재, 시왕각배재, 영산재의 홑소리 사설은 오언사구(五言四句), 칠언사구(七言四句) 등 한문(漢文)으로 된 산문과 범어(梵語)로된 진언(眞言)으로 구성되어 단창(單唱), 독창(獨唱), 대중창(大衆唱)으로 부른다. 반면 깃소리의 가사는 홑소리에 비하여 가사가 짧으나 그 연주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린다. 그러므로 이러한 홑소리와 깃소리는 이를 전문적으로 학습한 스님인 어장(魚丈)¹⁰⁾에 의해서 진행된다. 깃소리는 어장(魚丈)(어부)를 중심(中心)으로 작성(作聲), 재창(齋唱)하므로 거의 대중창(大衆唱)으로 불려지는 반면에 홑소리는 독창위주이다. 1968년 5월 13일에서 16일에 걸쳐 봉원사 영산재에서 162곡 소리가 불려졌는데 이는 곡목의 분류에 있어서 일반계송도 곡으로 포함시킨 듯하다.¹¹⁾ 현재 홑소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연회를 갖는 한국불교(韓國佛敎) 태고종(太古宗) 신촌(新村) 봉원사(奉元寺) 영산재(靈山齋) 시연회를 통해 이러한 소리를 접할 수 있으며, 본 글은 봉원사 영산재 홑소리 채록 근거를 바탕으로 순서를 나열하였다. 홑소리는 범패승이 갈향(曷香)을 시작으로 제일먼저 소리입문에 들어가는데 오

10) 범패 강습회를 漁會라 칭하고 최고의 범패승을 魚丈(漁夫)이라 하며 그 밑에 上講, 中講, 末講이 소리를 맡아 가르친다. 맨 처음 기초 입문단계로 常住勸供 홑소리를 익히고 두 번째 各拜의 홑소리, 셋째, 靈山의 홑소리, 마지막 단계로 깃소리, 안채비를 배우게 되며, 현재 생존하여 범패를 전승하고 있는 서울 신촌 奉元寺 朴松岩스님, 강화·문수사 張碧應스님 범음전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11) 韓萬榮, 前揭書, 『범패 깃소리와 홑소리의 비교연구』(서울대출판부, 1980), p.38.

언사구(五言四句), 칠언사구(七言四句)의 한문으로 된 정형시를 독창(獨唱) 형태로 이끌어 간다. 사구(四句)의 형태중 일구(一句)와 이구(二句), 이구(二句)와 사구(四句)는 동음성(同音聲)이 많고, 재 진행특성에 맞추어 동음성을 줄여 “개탁성(開鐸聲)”으로 부르기도 하며 평문(平文)으로 읽어나갈때 소리를 “쓸다”라는 표현으로 소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러한 홑소리는 주로 영산재, 각배재, 상주권공재, 수록재, 생전예수제 등 재진행 과정에서 불리며 그 외 의식에서는 몇 곡만 쓰인다. 각 재(齋) 의식의 순서분류는 의식집으로 가장 보편화된 안진호(安震湖)편 『석문의범(釋門義範)』과 1987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靈山齋) 지정과 더불어 어산(魚山)의 범음집(梵音集)인 『봉원사요집(奉元寺要集)¹²⁾』 백파(白坡) 홍선 스님의 『작법귀감(作法龜鑑)』 등에 나타나 있다.

1) 상주권공재(常住勸供齋) : 31곡

1. 할향(喝香) 2. 등계(燈偈) 3. 정례(頂禮) 4. 합장계(合掌偈) 5. 고향계(告香偈)
6. 상부개계(祥夫開啓) 7. 쇄수계(灑水偈) 8. 복청계(伏請偈) 9. 천수바라(千手바라)
10. 사방찬(四方讚) 11. 도장계(道場偈) 12. 참회계(懺悔偈) 13. 향화청¹³⁾(香煙請)
14. 가영(歌詠) 15. 고아계(故我偈) 16. 헌좌계(獻座偈) 17. 욕건이(欲建而) 18. 다계(茶偈)
19. 향수나렬(香水羅列) 20. 특사가지(特賜加持) 21. 사다라니(四多羅尼) 22. 운심계(運心偈)
23. 가지계(假持偈) 24. 회향계(回向偈) 25. 원아계(願我偈) 26. 옹호계(擁護偈)
27. 보례삼보(普禮三寶) 28. 옹호계(擁護偈) 29. 창불(唱佛) 30. 중단가영(中壇歌詠)
31. 중단다계(中壇茶偈)

상주(常住)란 재(齋) 의식(儀式)가운데 일반적으로 널리 보편화된 의식을 가리키고 1일 권공재라고도 한다. 상주권공재는 영산재를 축소하여 지내는 권공의식으로 일반적인 49재 형식은 상주권공재로 베풀어진다. 상단권공시 할향(喝香) 등 25곡, 중단(中壇), 하단(下壇)등 총 31곡의 홑소리가 불려지는데¹⁴⁾ 박운월(朴雲月)스님 동음집(同音集)에는 등계(燈偈), 정례(頂禮), 고향계(告香偈), 상부개계(祥夫開啓), 도장계(道場偈), 거불(擧佛), 특양가지(特賜加持), 창불(唱佛)등은 짓소리 곡목으로 불리었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일반 계송을 홑소리라 하는데 상주권공에 있어서 홑소리 학습과목은 1번에서 25번 곡까지 배운다.

2) 각배재(各拜齋) : 9곡

1. 할향(喝香) 2. 원부개계(原夫開偈) 3. 정토결계언(淨土結界眞言) 4. 쇄향수진언(灑香水眞言)
5. 걸수(乞水) 6. 향수훈욕조제구(香水熏浴藻諸垢) 7. 돌진언 8. 모란찬(牡丹贊)
9. 오공양(五供養)

3) 영산재(靈山齋) : 30곡

1. 할향(喝香) 2. 할등(喝燈) 3. 연등계(燃燈偈) 4. 할화(喝花) 5. 서찬계(舒讚偈)
6. 불찬(佛讚) 7. 대직찬(大直讚) 8. 삼훈(三歸依) 9. 중직찬(中直讚) 10. 보장취(寶藏聚)
11. 소직찬(小直讚) 12. 오덕사(五德師) 13. 영산개계(靈山開啓) 14. 관음청(觀

12) 奉元寺 要集, 奉元寺所藏, 世尊應化貳阡九百八十三年丙申 至月 上下分結, 박송암스님 증언에 따르면 “前 奉元寺 주지이셨던 보담스님이 寺中要集을 만들었다고”한다.

13) 상단, 중단에 집과 꽃을 올리면서 부처님의 묘한 덕을 찬탄하는 뜻으로 香化請이라 하며, 下壇인 靈壇에는 珍羞와 香을 올리기 때문 香煙請이라 한다.

14) 金應起(法顯), 常住勸供齋의 作法節次에 관한 研究, 圓光大 碩士論文 1994, p.11.

音請) 15. 대청불(大請佛) 16. 삼례청(三禮請) 17. 사부청(四府請) 18. 단청불(單請佛) 19. 일체공경(一切恭敬) 20. 향화계(香花偈) 21. 구원집중(久遠劫中) 22. 영산가지계(靈山假持偈) 23. 육법공양(六法供養) 24. 배헌해탈향(拜獻解脫香) 25. 배헌반야등(拜獻般若燈) 26. 배헌만행화(拜獻萬行花) 27. 배헌보리과(拜獻菩提果) 28. 배헌감로다(拜獻甘露茶) 29. 배헌선열미(拜獻禪悅味) 30. 각집계(各執偈)
 예수제와 수록제 상단권공 때에는 영산제의 소리를 진행한다.

3. 짓소리

짓소리는 홑소리에 비하여 유현청화(幽玄淸和)하고 연주시간이 길고 장엄하다. 짓소리에 관한 문헌은 동음집(同音集)¹⁵⁾에 그 목록이 전해질 뿐 실제로 불리어지는 짓소리는 13곡만이 있다.¹⁶⁾ “영산제의 진행은 거의 짓소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¹⁷⁾ 근래 들어 영산제는 몇 곡의 짓소리와 홑소리 중심으로 재(齋)를 이끌어 나간다. 짓소리의 특징은 본 소리에 들어가기 앞서 허덜품으로 시작하기도 하며 일자일자(日字日字) 사성(四聲)의 소리를 고르게 연결시켜 길게(장인성(長引聲)) 이어간다. 이러한 짓소리는 허덜품, 곁성, 홑성, 자용성, 상사구성을 쓴다. 보통 어장(魚丈)을 중심으로 대중이 등글게 원을 그리고 어장의 선창아래 대중이 동음으로 소리를 이어 받는다. 소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시간은 대략 30분~1시간 가까이 된다. 그러므로 영산제 등 큰 재가 베풀어 질때 몇 곡 정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짓소리는 홑소리 과정을 모두 마치고 안채비 과정까지 모두 배운 스님들에 한하여 짓소리를 익히게 된다.

1) 동음집(同音集)의 내용에 의한 짓소리 종류

현재 불려지는 짓소리에 대한 곡목은 박운월소장(朴雲月所藏) 판본(板本) 동음집(同音集), 김운공(金耘空) 소장(所藏) 판본(板本) 동음집(同音集)과 옥천유교동음집(玉泉遺敎同音集), 장벽응(張碧應) 소장(所藏) 판본(板本) 동음집(同音集)등 네권의 동음집이 남아 있다. 이러한 동음집은 범패승만이 알 수 있는 짓소리의 창법을 가사 옆에 표시하여 곡을 연주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동음집 내용을 보면 짓소리의 곡목이 꽤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채록되어 전래되는 짓소리는 1968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봉원사에서 거행된 영산제에서 김운과(金雲坡), 박송암(朴松岩), 장벽응(張碧應), 김운공(金耘空), 박운월(朴雲月), 조덕산(曹德山), 한제은(韓濟恩), 김화담(金華潭), 조일파(曹一波)에 의해 인성(引聲), 거령산(擧靈山), 관욕계(灌浴偈), 목욕진언(沐浴眞言), 단정례(單頂禮), 보례(普禮), 식령산(食靈山), 두갑(頭匣), 오관계(五觀偈), 령산지심(靈山至心), 특사가지(特賜加持)등 11곡의 짓소리와¹⁸⁾ 1969년 8월 8일과 12일 한만명의 짓소리 채록 녹

15) 朴世民, 佛敎儀式資料叢書, 서울: 保京出版社, 1991, 卷四, p.255-222.

朴雲月 所藏 板本 同音集 57곡,

金耘空 所藏 板本 同音集 57곡, 玉泉遺敎同音集 59곡,

張碧應 所藏 板本 同音集 60곡

16) 韓萬永, 前偈書『同音集 復元』, p.73. 현재 불려지는 곡은 引聲, 擧靈山, 灌浴偈, 沐浴眞言, 五觀偈, 食靈山, 單頂禮, 頭匣, 特賜加持, 普禮, 擧佛, 三南馱 등 13곡이다.

17) 朴松岩스님증언, (人間文化財 第50호號) 1995년 5월 27일 봉원사, 예전에 “영산제는 3일 동안 봉행되었는데(이것은) 영산의 각 계승과 경위가 짓소리 중심이었기 때문” 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들어 3일 동안 영산제를 모시는 회수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齋를 이끌어간 어장스님이 몇 분 안되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음에서 김운파(金雲坡), 박송암(朴松岩), 장벽응(張碧應), 박운월(朴雲月), 김운공(金耘空), 조덕산(曹德山), 김화담(金華潭)에 의해 거불(擧佛), 삼남견(三南馱) 등 2곡이 추가 되어 13곡의 짓소리가 전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 그러나 1995년 10월 19일 본인의 박송암(朴松岩)스님 증언조사에 의해 삼마하(나무마하반야바라밀), 불상점안시(음 아흠) 등 2곡이 복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종전 13곡 이외에 짓소리 복원 가능성을 제시하였다.²⁰⁾ 현재 이러한 짓소리는 어장(魚丈) 박송암(朴松岩)스님, 장벽응(張碧應)스님만이 생존하여 소리를 전수하고 있다.

1. 인성(남무대성인로왕보살)
引聲(南無大聖引路王菩薩)
2. 거령산(남무령산회상일절제불보살 마하살)
擧靈山(南無靈山會上一切諸佛菩薩 마하살)
3. 관욕계²¹⁾(아금이차향탕수 관욕고혼급유정 신심세척령청정 증입진공상락향)
灌浴偈(我今以此香湯水 灌浴孤魂及有情 身心洗滌令清淨 證入眞空常樂鄉)
4. 목욕진언(음 바다모 사니사 아모가 아례흠)
(沐浴眞言)
5. 거불(남무극락도사 아미타불)
擧佛(南無極樂導師 阿彌陀佛)
6. 보례(보례십방무상존)
普禮(普禮十方無上尊)
7. 특양가지(특양가지)
特揚加持(特揚加持)
8. 식령산(남무령산회상불보살)
食靈山(南無靈山會上佛菩薩)
9. 삼귀두갑(지심신례불타야양족존)
三歸頭匣(志心信禮佛陀耶兩足尊)
10. 단정례(일심정례십방상주불법승)
單頂禮(一心頂禮十方常住佛法僧)
11. 령산거불(남무극락도사아미타불 남무령산교주석가모니불)
靈山擧佛(南無極樂導師阿彌陀佛 南無靈山教主釋迦牟尼佛)
12. 삼남태(음 아라남 아라다 지심귀명례)
三南馱(음 아라남 아라다 志心歸命禮)
13. 오관계(계공다소량피래처 응수차식)
五觀偈(計功多小量彼來處 應受此食)

18) 月刊 佛教編輯部, 佛教界 通卷 12호 『梵音·梵唄』 佛教界社, 1968, p.18.

19) 韓萬榮, 前偈書 『同音集 復元』, p.73.

20) 朴松岩스님 증언, 1995년 10월 19일 봉원사, 과거 영산제는 짓소리로 거의 진행되며 짓소리는 봉원사 어장 金月河스님과 스님의 제자인 金雲坡, 曹德山, 金華潭, 南碧海, 朴法庵, 金성스님과 학도암 金耘空, 화장사 朴淸海, 朴雲月, 吳寶華스님 등이 짓소리를 잘 지으셨다고 하며 현재 불리는 짓소리 單頂禮는 朴法庵스님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21) 金雲空스님 同音集, 灌浴偈는 靈山齋時 下壇 灌浴篇 灌浴偈 豫修劑 召請聖位篇 관욕계 등 두곡 모두 짓소리로 불려진다고 동음집에 적혀 있으나 현재는 영산제시 관욕계성만 전해질 뿐 예수제시 관욕계성은 불려지지 않는다.

14. 삼례청(일심정례 남무진허공편법계십방상주일절불타야중)
三禮請(一心頂禮南無盡虛空偏法界十方常住一切佛陀耶衆)
15. 옹호계(보정상)
擁護偈(報禎祥)
16. 사부청(이발보제일절성중)
四部請(已發菩提一切聖衆)
17. 일절공경(일절공경)
一切恭敬(一切恭敬)
18. 자민고²²⁾(자민고)
慈愍苦(慈愍苦)
19. 시제중등일(시제중등 각각호괘 엄지향화여법공양 십방법계삼보)
是諸衆等一(是諸衆等 各各호괘 嚴持香花如法供養 十方法界三寶)
20. 각집계(원차일신화다신일일신출 백천수 각집향화등다과 공양령산제불타)
各執偈(願此一身化多神一一身出 白千手 各執香花燈茶菓 供養靈山諸佛陀)
21. 가영(사고무인법불전 록원학수양망연 조조대사생부세 처처명성현벽천)
歌詠(四顧無人法佛傳 鹿園鶴樹兩茫然 朝調大士生浮世 處處明星現碧天)
22. 인연자성(인연자성소출생)²³⁾
因緣自性(因緣自性所出生)
23. 유원자비애납수(애납수)²⁴⁾
惟願慈悲哀納受(哀納受)
24. 움어흠어해²⁵⁾
움於흠於海
25. 오불례(남무청정법신비로자나불)
五佛禮(南無清淨法身비로자나불)
26. 삼마가(남무마사반약파라밀)
三摩訶(南無摩訶般若波羅密)
27. 대삼보례(아금보례십방불)
大三寶禮(我今普禮十方佛)
28. 삼정례(일심정례 상래봉청십방상주일절불타야중)
三頂禮(一心頂禮 上來奉請十方常住一切佛陀耶衆)
29. 오사례(일심봉청룡종본사석가모니불)
五師禮(一心奉請龍種本師釋迦牟尼佛)
30. 모단찬(매헌룡화회)
牡丹讚(買獻龍華會)
31. 별례청(일심예청 남무주두울강왕궁 팔상성도 본사 석가모니불)
別禮請(一心豫請 南無住兜率降王宮 八相成道 本師 釋迦牟尼佛)
(일심례청남무마갈국해인정칠일 엄관본사석가모니불)

22) 박송암스님 증언, 1995년 10월 19일, 보살계 설(設)할 때 법사가 “자민고”하면 계를 받는 이는 “능지”라고 하는데 예전에 짓소리 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23) 朴敏世, 前偈書 卷三, P.18. 智選編, 天地冥陽水陸齋義梵音刪補集 卷上, 使者壇勸供時

24) 朴世敏, 前偈書, P.18. 使者壇 勸供時

25) 朴世敏, 前偈書 卷三, P.18. 五路壇勸供時

- (一心禮請南無摩竭國海印定七日 掩關本師釋迦牟尼佛)
 (일심례청남무영취산래회 점화시증본사석가모니불)
 (一心禮請南無靈鷲山來會 粘花示衆本師釋迦牟尼佛)
32. 원불축(무량수불 대황제계하수만세 약사여석가여래래황태자전하수만세소*장보살
 간과願佛祝(無量壽佛 大皇帝階下壽萬歲 藥師如釋迦如來來皇太子殿下壽萬歲消*障菩
 薩 干戈식정민안락 치성광여래 천하태평법륜전)息靜民安樂 熾盛光如來 天下太平法
 輪轉)
33. 삽향계(심향일주기운봉 직하청염*벽공 앙청불법승삼보 항임천엽보연대)
 插香偈(心香一炷起雲峰 直下清澗*碧空 仰請佛法僧三寶 降臨千葉寶蓮垵)
34. 가지계(이차가지 묘공구 공양십방제불타)
 加持偈(以此加持 妙供具 供養十方諸佛陀)
35. 특신공양(특신공양)
 特伸供養(特伸供養)
36. 거불(남무미타회상불보살, 남무화엄회상불보살 남무마하 회상불보살)
 擧佛(南無彌陀會上佛菩薩, 南無華嚴會上佛菩薩 南無摩訶 會上佛菩薩)
37. 팔상(남무삼계사생부석가모니불)
 八相(南無三界四生父釋迦牟尼佛)
38. 사방주(음 아마라사)
 四方呪(음 阿摩羅詞)
39. 산화락(산화락)
 散花落(散花落)
40. 가영(일엽홍련 재해중 벽파심처현신통 작야보타관백재 금일항부도장중)
 歌詠(一葉紅蓮 在海中 碧波深處現神通 昨夜寶陀觀自在 今日降赴道場中)
41. 오공양(향공양 연향공양 불사자비수차공양)
 五供養(香供養 燃香供養 佛捨慈悲受此供養)
42. 도장계(도장청정 무하예)
 道場偈(道場清淨 無瑕穢)
43. 사무량계일대자례(대자대비민중생 대희대사제합식 상호광명이자엄)
 四無量偈一大慈禮(大慈大悲愍衆生 大喜大捨諸含識 相好光明以自嚴)
44. 지반지심(지심귀명례 십방법계제불법상주삼보)
 志盤至心(至心歸命禮 十方法界諸佛法常住三寶)
45. 고아계(고아일심귀명정례)
 故我偈(故我一心歸命頂禮)
46. 고향계(향연편복삼천계, 유원삼보대자비)
 告香偈(香烟偏覆三千界, 惟願三寶大慈悲)
47. 개계후성일상부개계(성우정토)
 開啓後聲一祥夫開啓(成牛淨土)
48. 대개계후성일령산개계(일진지청정)
 大開啓後聲一靈山開啓(一眞之清淨)
49. 진령계²⁶⁾(이차진령신소칭)

26) 振鈴偈는 법주가 요령을 흔들어 冥途衆生을 請하는 계승으로 안채비성은 전승되고 있지만 짓소리는 곡목만 전

- 振鈴偈(以次振鈴伸召請)
50. 향화계(원향도장수차공양)
香花偈(願降道場受此供養)
51. 민정례(일심정례십방상주삼보)
愍頂禮(一心頂禮十方常住三寶)
52. 멸신업죄
滅身業罪
53. 영산지심(지심귀명례 영산회상 념화시중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靈山志心(至心歸命禮 靈山會上 拈花示衆 是我本師 釋迦牟尼佛)
54. 령취계(령취념화시상기 부여수)
靈驚偈(靈驚拈華示上機 付與誰)
55. 운하범(운하범)²⁷⁾
云何梵(云何梵)
56. 원수에납수(애납수)
願垂哀納受(哀納受)
57. 등계(연향계)(계정혜해지견향 편십방찰상분□ 원차향연역여시 훈현자타오분신)
燈偈(燃香偈)(戒定慧解知見香 偏十方刹常芬□ 願此香烟亦如是 熏現自他五分身)
58. 대삼보례(아금보례상주불)
大三寶禮(我今寶禮常住佛)
59. 종성일원차종성편법계
鐘聲一願此鐘聲遍法界
60. 오자계-음 살바못다 달마승가람 남모 소도제²⁸⁾(예수재보례삼보편)
五字偈-음 살바못다 달마승가람 남모 소도제(豫修齋普禮三寶篇)
61. 관욕계-음 제사제사 승가사바하²⁹⁾(예수소청성위편)
灌浴偈-음 제사제사 승가사바하(豫修召請聖位篇)
62. (음아흠)
63. 회향계³⁰⁾(보원중생고륜해 총령제열득청량 개발무상보제심 동출애하등피안)
回香偈(普願衆生苦輪海 摠令除熱得清涼 皆發無上菩提心 同出愛河登彼岸)
64. 걸수성³¹⁾
乞水聲
65. 신중창불(봉칭이십오위만사길상호계대신)

해질 뿐이다.

27) 朴世敏, 前偈書 卷四, 朴雲月 同音集 五佛禮 p.257. 가사에 (云何梵)이 기록되어 있고 張碧應스님 同音集, p.263. 金耘空스님 同音集, p.268.에서는 각기(云何梵)을 따로 떼어 놓았다.

28) 金耘空스님 同音集, p.274에 五字偈곡목이 적혀있고 다른 同音集에는 그 곡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29) 金耘空스님 同音集, p.234.에서 豫修齋召請聖位篇, 灌浴偈 곡목을 짓소리라 적고 다른 동음집에서는 그 곡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30) 朴雲月 同音集, 舉佛(阿彌陀佛)靈山志心, 五師禮, 八相의(釋迦牟尼佛)單頂禮(衆等)은 回香偈소리와 동일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回香偈도 짓소리로 불러졌음을 알 수 있으나 回香偈의 어느 귀절과 同一聲인지는 알수 없다.

31) 朴松岩스님의 증언, 1995년 10월 19일, 봉원사. 乞水는 각배의 걸수성을 가리킨다고 한다. 朴雲月 同音集 五供養)가사의 供養과 受此의 소리는 걸수성과 同一하다고 적혀져 있는 것으로 보아 걸수는 훗소리로 불리기도 하고 또한 짓소리임을 알수 있다. 乞水란 곡명은 의식문에 각기 두곳에서 보이는데, 安震湖 釋門義範, 上, p.117.靈山 齋時 乞水偈가사는 (金爐氛 氣一炷香 先請觀音降道場 願賜瓶中甘露水 消除熱惱獲清涼) 釋門義 上, p.133. 各拜齋 時 乞水 가사는 (我今以性之情悲水 和合性情之偈香 遍灑法界 衆生心地 及淨道場 悉令清淨)

神衆唱佛(奉請二十五位萬事吉祥護戒大神)

66. 운심계³²⁾(원차향공편법계 보공무진삼보해 자비수공증선근 영법주세보불은)

運心偈(願此香共遍法界 普共無盡三寶海 慈悲受供增善根 令法住世報佛恩)

67. 원아계³³⁾(원아 금일재자 모인복위 소천망 모인령가 당령복위 상서선망 사존부모

렬위령가 왕생서방 안락찰)願我偈(願我 今日齋者 某人伏爲 所薦亡 某人靈駕 當靈伏爲上逝先亡 師尊父母 列位靈駕 往生西方 安樂刹)

68. 욱건이³⁴⁾(욕건만나라 선송 정법계 진언 음 남)

欲建而(欲建曼拏羅 先誦 淨法界 眞言 음 남)

4. 화청(和請)

화청은 회심곡은 엄격히 다르다. 안채비와 바깥채비는 사성(四聲)체계를 바탕으로 소리의 고저(高低)를 이루지만, 회심곡은 개개인의 독특한 음성으로 사설형식의 가사를 부르기 때문에 일반대중이 쉽게 그 뜻을 전달받을 수 있다. 화청(和請)의 본뜻은 불·보살을 청하여 불법을 통한 공덕과 회향의 내용을 담은 축원을 통해 영가가 극락왕생하는 의식적 뜻을 담고 있다. 원래 화청이라 함은 축원화청을 말하며, 평염불 가운데 덕담부분을 뺀 부모은중경, 백발가 등은 따로 분리하여 회심곡이라 한다. 1969년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 제65호 『화청(和請)』에는 평염불(平念佛), 회심곡(回心曲), 고사선염불(告祀先念佛), 살풀이, 달풀이, 호구역살풀이, 과거풀이, 성조(成造)풀이, 삼재(三災)풀이 등을 화청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고 있다. ³⁵⁾ 회심곡 음악은 평조 또는 동부민요 선법으로 불린다. 또한 가곡(歌曲)의 한 분류에 포함하여 축원화청을 하기 전에 앞서 회심곡을 부르기도 한다.

축원화청(祝願和請) - 1. 상단축원화청(上壇祝願和請) 2. 지장축원화청(地藏祝願和請)회심곡(가곡³⁶⁾) - 회심곡, 백발가, 몽환가, 참선곡, 권왕가, 원적가, 왕생가, 신년가, 신불사, 가가가음, 찬불가, 경축가, 성탄가, 성도가, 오도가, 열반가, 월연가, 목련가, 권면가, 별회심곡, 부모은중경청, 팔상화청, 욱감화청, 고사선염불 등이 있다.

5. 범패(梵唄)와 작법무(作法舞)

안채비와 바깥채비가 음성공양(音聲供養)이라면 작법무(作法舞)은 신업공양(身業供養)이라고 할 수 있다. 작법(作法)은 동작으로 법을 짓는다는 뜻으로 바라무, 나비무, 법고무 등 3종류로 분류한다. 작법무에 대한 기원을 경전에서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할 때 천사색(天四色)의 채화(彩花)를 내리는 가섭이 이를 알아

32) 朴雲月, 同音集, 燈偈(知)字는 運心偈(共)字와 同一聲이라 표시한 것으로 보아 運心偈도 忽소리와 깃소리로 불러졌음을 짐작한다.

33) 朴雲月, 同音集, 告香偈(香煙偈, 惟願三寶)와 各執偈(願此)소리는 願我偈소리와 同一하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아계의 어느 字와 同一聲인지는 알 수 없으나 깃소리성임은 알 수 있다.

34) 朴雲月, 同音集, 志盤志心(諸)字와 三禮請(盡虛空)字는 欲建而聲을 하라고 하였고, 三禮請(佛陀耶衆)은 “忽소리 欲建而聲으로” 하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깃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5) 韓萬榮, 前偈書, 『和請과 告祀念佛』(서울대출판부, 1980), p.97.

36) 安震湖, 釋門義範(서울 : 法輪社, 1983), 下卷, pp.231-290.

차리고 빙긋이 웃으며 춤을 춘것을 승려들이 모방하였다는 설과 중국(中國)의 위진사왕(魏陳思王) 조식(曹植)(조자건(曹子建))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梵天)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에 맞추어 고기떼가 춤을 추므로 그 소리를 모방해 범패를 짓고 고기떼의 노는 모양을 본뜬 것이 승무라는 설 등이 있다. 감로 탕화에 스님들의 육법공양(六法供養)과 바라무, 나비무, 범고무를 통한 신업공양(身業供養)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작법무는 꽤 오래 전부터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1) 바라무(舞)

신묘장구대다라니 글귀와 태징 반주에 맞추어 바라무를 한다. 요잡이라고 부르는 바라무는 범어(bala)는 힘(力)이라는 뜻으로 빠른 동작과 힘찬 춤 모습에서 동적(動的)인 표현의 춤사위를 잘 알 수 있다. 천수바라와 사다라니 바라무는 각기 다라니를, 화의재 바라는 진언을 훗소리로 부르고 태징소리 박자에 맞추어 무(舞)가 이루어지며 명바라, 관욕쇠바라, 내림계바라, 막바라 등은 훗소리가 없고 태징박자에 맞추어 무(舞)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1. 천수바라³⁷⁾
2. 사다라니바라³⁸⁾
3. 명바람(명발)
4. 관욕쇠바라³⁹⁾
5. 내림계바라⁴⁰⁾
6. 막바라(요잡)
7. 화의재바라

2) 나비무(舞)

육수장삼과 영자가사를 소한 스님의 불보살, 찬탄과 공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두름소리에⁴¹⁾ 맞추어 느린춤사위를 구사하는데 이는 정적(靜的)인 춤사위라 할 수 있다.

1. 향화계(香花偈)
2. 도량계(道場偈)
3. 다게(茶偈)⁴²⁾

37) 관세음보살 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의 가사의 곡목에 맞추어 바라무가 진행되는데, 이 대비주를 독송하게 되는 법력이야말로 모든 중생이 정성껏 들으면 찰나에 성불할 수 있다는 뜻으로 염송하며 곡에 맞추어 천수바라무를 한다. 현재 영산제가 마당종목으로 변경되어 作法舞는 1987년 11월 李一應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되었고 莊嚴부분으로 鄭智光스님이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38) 四多羅尼眞言의 가사에 맞추어 바라무를 하는데 진언의 내용은 아귀보를 받은 衆生에게 공양을 베풀기 위해 생긴 법이고, 명바라, 관욕쇠바라, 막바라 등은 가사가 없다.

39) 灌浴이라 함은 몸이 아닌 마음의 번뇌를 씻는 것으로 영가가 욕실에 들어가 번뇌를 세척할 때 관욕쇠 소리를 듣고 일체잡념을 일으키지 말라고 치는 것으로 영혼이 태징이나 요령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번뇌를 쉬게 되기 때문이다.

40) 내림계바라의 가사는 없고 태징곡목에 맞추어 하는데 향화청 소리를 하기전 “원강도량수차고양”을 염송한 후 내림계 태징을 울리고 바다가 끝나면 향화청 소리를 동음으로 한다.

41) 黃晟起, 前偈書, 『韓國佛教 梵唄研究』 p.250. 범패의 분류 가운데 바깥채비를 훗소리, 짓소리, 별도로, 작법무를 할 때 대중이 둥근 원을 그리며 부르는 소리라 하여 두름소리(요사성)등 셋으로 나누었다. 朴松岩스님 증언(人間文化財 第50號) 1995년 3월14일 장소 봉원사. “원래 소리 분류는 3가지 형태인데 안채비, 바깥채비의 훗소리, 짓소리 등이고 별도로 화청을 포함한다면 네 분류로 나누며, 작법무 진행시 소리는 훗소리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4. 삼귀의(三歸依)
5. 모란찬(牡丹讚)
6. 오공양(五供養)
7. 구원겁중(久遠劫衆)
8. 자귀불(自歸佛)
9. 정례(頂禮)
10. 지옥계(地獄偈)
11. 기경(經)
12. 사방요신(四方繞身)
13. 운심계(運心偈)
14. 만달작법(曼達作法⁴³⁾)
15. 타주무(打柱舞)

타주무는 두 스님이 각기 타주채를 가지고 식당작법시 당상의 경쇠소리에 맞추어 좌, 우 타주채를 올린 후 팔정도를 중심으로 타주무를 한다. 이는 공양의식을 통하여 공양의 진정한 의미와 수행자로써 올바른 길을 가는가 다시금 돌이켜 보게 하며 영산재 진행시 장엄하게 치뤄진다.⁴⁴⁾

3) 법고무(法鼓舞)

범음(梵音) 곡목이 없고 단지 사물(四物) 중심으로 한 스님이 가사장삼을 소하고 양손에 북채를 잡고 시선은 북을 쏘아보며 삼현육각과 태징, 호적에 맞추어 느린 동작에서 점차 빠른 동작으로 춤을 춘다. 북소리와 태징 등 사물(四物)소리를 통하여 허공중생(虛空衆生), 축생(畜生)등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무(舞)이다.

IV. 맺는말

재(齋)의식에 있어서 안채비는 대체적으로 본(本) 사찰의 범법승(乘法僧)이 맡아서 하였으나 현재는 전문적 범패승에 의해 진행되며 바깥채비의 훗소리, 깃소리 또한 범패승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현재 간단한 권공의식은 평염불(平念佛)로 하지만 특별한 권공의식은 범패승을 초청하여 의식진행을 하므로 의식승에 국한하여 그 소리가 전승되어 간다. 이것은 강원(講院)에서 교(敎)를 중심으로 의식(儀式)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염불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리 전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각 소리 분류가 바람직하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로 깃소리 중심의 범패가 1973년 11월 5일 무대종목으로 지정된 후 1987년 명칭

42) 茶偈作法時 두 종류의 가사가 있다. 靈山齋時 茶偈(今將甘露茶 奉獻三寶前 鑑察虔懇心 願垂哀納受)와 豫修齋時 召請使者壇 茶偈(清淨 茗茶藥 能際病婚沈 惟冀使者衆 願垂哀納受)등의 소리와 춤사위는 同一하므로 茶偈作法으로 포함한다.

43) 洪潤植, 朴憲鳳, 法鼓 十二次, 1967년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p.526. 朴松岩스님 증언(人間文化財 50號), 1989년 12월 3일 장소 봉원사, “오래 전 봉원사 예수재 작법시 본적은 있으나 현재는 그 가사만 전해질 뿐 소리 형태나 춤사위를 알 수 없다.” 고 하며, 朴雲月스님 同音集, 張碧應스님 同音集, 金耘公스님 同音集에 因緣自性(因緣自性所出生)은 깃소리 곡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현재는 평염불성으로 한다.

44) 金應起(法顯), 靈山齋의 構成과 그 信仰의 意義에 관한 研究, 東國大 碩士論文, 1994. p.14.

을 영산재로 바꾸어 마당종목으로 변경 범패(梵唄), 작법(作法), 도장장엄(道場莊嚴) 등 세 가지 분류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아직 범패 분류에 대한 세분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범패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어 보유자를 지정하였으나, 범패는 각 소리를 나누어 1. 안채비 2. 상주권공 훗소리 3. 시왕각배 4. 영산 훗소리 5. 짓소리 등 크게 다섯 부분으로 세분화시켜야 한다. 짓소리는 그 곡목에 따라 기능을 전승해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범패의 장기적 전승차원에서 볼 때 판소리처럼 각기 소리의 기능분류만이 그 맥을 이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범패 복원화 작업이다. 짓소리의 경우 동음집(同音集)이 있고 곡옆에 각기 동일성(同一聲)임을 표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녹음된 자료와 어장스님을 중심으로 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문화재연구소(文化財研究所) 예능민속연구실(藝能民俗研究室)과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된 짓소리 13곡은 1968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정보고를 위한 연구와 더불어 녹음·채록된 곡이며, 그 이후의 범패는 종교음악의 특수성과 더불어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본 글에서 짓소리(삼마하, 음 아훗) 등 몇몇 곡은 완전히 복원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일부 곡(曲)은 부분적으로 복원 가능성이 어장(魚丈)스님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 외 곡은 복원이 불가능할 지라도 곡의 가사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범패의 안채비와 바깥채비의 분류가 이루어진 점, 짓소리(삼마하, 음 아훗)의 복원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어장 스님들 가운데 구음(口音)으로만 전하던 72가지 짓소리 중 동음집 분석을 통해 68곡 짓소리의 곡목(曲目)과 가사(歌詞)를 서술하였음에 의의를 둔다.

불교의 광범위한 의식에 있어서 『범패의 분류 연구(1)』은 재의식(齋儀式)중심으로 채비별로 소리를 나누었다. 재(齋)의 구성(構成)에 따른 범패의 쓰임은 다음편 『범패의 분류 연구(2)』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 白坡□璇 著, 作法龜鑑, 卷上 下.
奉元寺 編, 佛教要集, 奉元寺所藏.
安震湖, 釋門義範, 서울,法輪社, 1983.
洪潤植, 藝能民俗研究室編輯, 佛教儀式, 文化財研究所, 1989.
朴世敏, 佛教儀禮資料叢書, 卷三, 卷四, 서울, 保景文化社, 1993.
朴雲月, 所藏 板本 同音集
張碧應, 所藏 板本 同音集
金耘空, 所藏 板本 同音集
金耘空, 所藏 玉泉遺教 同音集
金月雲, 日用儀式隋聞記, 중앙승가대출판국, 1991.
韓萬榮, 韓國佛教音樂序說, 「韓國梵唄의 變革」, 「梵唄 짓소리와 훗소리의 比較研究」, 「同音集復元」, 「和請과 告祠念佛」 서울대출판부, 1989.
李惠求, 韓國音樂序說, 서울대출판부, 1987.
黃晟起, 佛教의 認識·論理·儀禮, 서울, 保林社, 1989.
洪潤植, 朴憲鳳, 法鼓 12次, 無形文化財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67.
洪潤植, 食堂作法, 無形文化財報告書 46號, 文化財管理局, 1968.
金應起(法顯), 常住勸供齋 作法節次에 관한 研究, 圓光大 碩士 論文, 1994.
金每淑, 안채비 소리의 시김새, 서울대 碩士 論文, 1980.
東國大調查編, 無形文化財 第65號 和請, 無形文化財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68.
「月刊佛教界 6月號, 通卷 第12號」, 서울 佛教界社, 1968.